

한국의 국가 경쟁력 실태와 과제

-「IMD 보고서」를 중심으로-

유병규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경제학

민주홍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경제학

IMD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95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94년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국내 경제 능력, 인적 자원, 과학 기술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데도,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국제화와 같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미약하고 금융과 사회간접자본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MD는 한국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금융 부문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국내 경제의 활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IMD 조사 방법과 한계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세계 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과 공동으로 81년부터 매년 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국가 경쟁력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IMD 보고서」는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의 능력"이라 정의하고, 국내 경제 능력, 국제화, 정부, 금융, 사회간접자본, 기업 경영, 과학 기술, 인적 자원의 8개 부문으로 나누어 총 248 가지의 통계 자료와 130 가지의 설문 결과를 가중 평균하여 각국의 경쟁력을 분석한다. 하지만 통계 자료 중에는 해당 자료가 없는 나라가 많거나 비교하기 애매

한 경우가 있어 실제로 2/3 정도만 비교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 통계 자료에는 1의 가중치를 설문 결과에는 0.75의 가중치를 둔다. 조사 대상 국가는 94년 41 개국에서 95년에는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아이슬란드, 페루 등 7 개국이 추가되어 총 48 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평가 방법은 이론적 근거가 취약하고 국가별 역사적·지역적 특성과 국민 의식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을 간과하고 있으며 설문 조사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활용 가치는 이에 나타나 있는 경쟁력 순위 그 자체에 얽매이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평가된 우리 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 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

요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 한국의 국가 경쟁력

전체 중 순위¹⁾

한국은 전체 평가 대상 48 개국 중 중간 수준인 24위에 머물렀다. 이는 94년과 명목상 동일한 순위이나 95년 평가 대상에 추가된 7 개국 중 하나인 이스라엘이 23위를 한 점을 감안하여 94년 순위와 비교해 보면 한 순위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94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향상 정도는 극히 미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한편,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 조사를 통한 주관적 평가에서 나타난 한국의 경쟁력 순위는 28위이다. 이는 94년 순위인 36위보다 상승한 것이나 종합 평가 순위인 24위보다는 낮은 것이다. 따라서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94년보다는 나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한국의 세계적인 이미지는 객관적 수준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도국 중 순위

48 개국 중 OECD 회원국을 제외한 24 개국 중 한국의 경쟁력 순위는 7위이다. 이 역시 94년 순위와 동일한 것이나 6위가 새로운 평가

<표 1> 아시아 네 마리 용의 부문별 경쟁력 순위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국내 경제 능력	6(4)	2	3	7
국제화	34(32)	2	3	14
정부	24(23)	1	2	5
금융	34(33)	1	4	12
사회간접자본	30(18)	12	17	29
기업 경영	25(20)	5	8	15
과학 기술	15(5)	10	23	8
인적 자원	21(20)	1	19	18
48 개국 중 종합 순위	24	2	3	11

주: () 안은 싱가포르와 한국의 순위 격차임.

1) 국가별·내용별 자세한 순위는 <부표> 참조.

대상으로 추가된 이스라엘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경쟁력은 94년에 비해 한 순위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 이른바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에서 한국의 경쟁력 순위는 94년에 이어 95년에도 최하위에 머물러있다. 더욱이 한국의 경쟁력 순위는 94

<표 2> 한·중·일 경쟁력의 강점과 약점

		한 국	중 국	일 본
국내 경제 능력	강점	산업 생산, 자본 형성 6	농업, 자본 형성 12	물가, 민간 최종 소비, 산업 생산, 부가가치, 서비스 분야 4
	약점			생활 비용
국제화	강점	34	외국인 직접 투자 환경 27	환율, 해외 직접 투자, 상품 수출 9
	약점	보호주의		문화의 개방성, 보호주의
정부	강점	국가 재정 24	국가 재정 21	공적 유보액 27
	약점	경쟁 환경		
금융	강점	34	44	금융 서비스, 주식 시장 효율성, 자본 비용 6
	약점			
사회간접 자본	강점	30	45	28
	약점	에너지 과소비, 에너지 자급도	정보 기술, 교통의 하부 구조, 기술 부문의 하부 구조	에너지 자급도
기업 경영	강점	25	47	생산성, 기업 성과, 기업가 정신 4
	약점		기업 성과, 기업가 정신, 경영 효율성	
과학 기술	강점	15	26	특허, 개인당 R&D 투자, R&D 지출, 기술 관리 2
	약점			
인적 자원	강점	근로 자세, 인구 구조의 건전성, 고용 21	고용 40	낮은 실업률, 근로 자세 6
	약점		높은 실업률, 교육 구조, 노동력의 질	

주: 1) 부문별 강점은 항목별로 세계 5위 이내인 것이고 약점은 44위 이하인 것을 의미함.
2) 이탤릭체 수치는 부문별 종합 순위를 나타냄.

년뿐만 아니라 95년에도 말레이시아에까지 밀려있다. 한국이 아시아 개도국들에 비해 경쟁력 순위에서 가장 크게 뒤지고 있는 부문은 금융, 국제화, 정부 부문이다. 특히, 아시아 개도국 중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싱가포르의 금융, 정부 부문에서 세계 제 1의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며 국제화 부문의 경쟁력은 세계 2위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쟁력 순위는 각각 34위, 34위, 24위에 불과해 양국의 부문별 순위 격차는 각각 33, 32, 23위에 이른다.

韓·中·日 경쟁력의 강점과 약점

동북아시아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경쟁력을 부문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은 산업 생산, 근로 자세 등에서 상대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국제화가 가장 취약한 부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은 부문별 종합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중국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나나, 정부와 국제화 부문은 중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게 된 이유는 중국의 조사 대상이 경제 특구에 한정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모든 부문에서 다른 두 나라보다 경쟁력이 앞선 것으로 평가되지만 생활 비용, 문화의 개방성과 보호주의 면에서 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농업과 자본 형성, 고용 인구 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 진출 면에서 세계 4위의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 부문별 경쟁력의 강점과 약점

부문별로 우리나라의 경쟁력 수준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 능력, 과학 기술, 인적 자원 부문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데 비해 국제화, 금융, 사회간접자본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제 능력

우리나라의 국내 경제 능력은 48 개국 중 6 위라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물가 불안과 농업 부문의 낙후 등에 개선의 여지를 갖고 있다. 산업 생산 능력 확대, 국민 총생산의 꾸준한 증가, 그리고 높은 투자율 유지 등 우리나라는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미래 경제 예측도 낙관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물가 불안과 서비스 부문 특히, 농업 부문이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어 앞으로 경제 안정과 부문별 균형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국제화

우리나라 국제화 부문의 경쟁력은 다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으나 향상 정도는 미약하다. 외국어 교육,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 등 비경제적인 국제화 부문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어 정부의 국제화 노력이 외교·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역 수지 균형이나 국내 시장 개방 그리고 해외 기업과의 제휴 능력 등 국제화의 실제 내용 면에서 경쟁력이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시장 개방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작년에 이어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정부의 국제화 노력이 경제계에서는 체감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정부의 재정 구조나 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는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정부 부문에 대한 경쟁력 평가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95년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가 매우 향상되었는데, 이는 사회 보장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아 우리 정부의 재정 구조가 비교적 건전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융 실명제, 세제 개편, 흑자 예산 편성 등의 정부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향상 원인 중의 하나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의 효율성 및 투명성, 규제 완화와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하위권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문에서 94년보다 악화되었다고 평가되었다.

금융

증권 시장의 규모나 은행의 크기 등은 각각 세계 7위와 11위로 나타나 국내 금융 규모가

세계적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금융 서비스나 자금의 가용성과 같은 내용 면에서는 경쟁력이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본 비용과 증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향상됐다고 평가됐으나, 이는 단기 실질 이자율과 증권 시장 여건의 일시적인 지표 변화일 뿐 내용 면에서 경쟁력이 향상됐다는 근거는 없다. 더구나 중앙은행이나 일반 은행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신뢰도나 국가 경제에의 기여도 평가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금융 부문의 질적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에너지 소비가 공급 능력의 확대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심각해지면서 전체적인 사회간접자본의 경쟁력이 94년보다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에너지 부문의 경쟁력이 높기 어렵지만, 에너지 소비의 증가가 공급 능력이나 경제 성장보다 빠르다는 에너지 과소비 문제가 우리의 경우에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 부문은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 등 재활용에 대한 노력으로 이와 관련된 항목의 경쟁력이 향상되었지만, 공해 문제의 개선 정도가 낮고 1인당 경작 가능 면적이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되면서 전반적인 환경 부문의 경쟁력은 취약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운송 부문은 별다른 개선없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정보·통신 부문은 개선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작년

과 마찬가지로 중위권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업 경영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생산성 증가를 넘어서는 임금 상승으로 나타났다.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임금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경쟁력 저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기업들의 경영 혁신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기업 경영과 관리에 대한 질적 수준이 크게 향

상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기업 경영 부문의 경쟁력은 향상되었다. 특히, 소비자 중심 및 품질 우선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자 혁신 부문에서의 개선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과학 기술

과학 기술 분야는 과학 기술 투자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총 투자 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조사에 이어 올해에

<표 3> 부문별 경쟁력의 강점과 약점

	강 점	약 점
국내 경제 능력	제조업 산업 생산 능력 확대, 높은 투자율	물가 불안, 서비스 부문과 농업 부문 낙후
국제화	수출 증가, 외국어 교육 향상,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	해외 기업과의 제휴 능력 취약, 경상 수지 악화
정부	재정 구조 건전 및 재정 지출의 효율성 양호	정부의 효율성 저조, 규제 완화 미흡
금융	증권 시장 및 은행 규모 각각 세계 7위와 11위	금융 기관에 대한 신뢰도 및 국가 경제에의 기여도 미약
사회간접자본	정보·통신 부문 개선 추세	에너지 파소비 심각, 운송 부문 취약
기업 경영	기업들의 경영 혁신 노력 우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향상	임금의 과도한 상승
과학 기술	R&D 투자 규모 세계 10위권 수준	기초 과학 부문 취약, 기술 관리 허술
인적 자원	노동력과 근로 의욕 우수	교육 환경 낙후, 국민 보건 취약

도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연구원 중에서 차지하는 산업 기술 부문 연구원의 비중도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업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전망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초 과학 부문의 경제에 대한 기여도 및 기초 과학 교육이 모두 중위권에 머물고 있어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정책이 산업 기술 분야에 치중되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기술 관리 측면에서도 기업간의 기술 협력 및 기술 개발 전략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별다른 향상없이 중위권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과학 기술 향상은 증가하는 과학 기술 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 자원

인적 자원 분야는 노동력과 근로 의욕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교육과 생활의 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 인력 구조는 건실하며 고급 인력의 확보도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양호한 노동 공급 조건과는 대조적으로 교육 여건은 중위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학생에 비해 크게 부족한 교사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 문제에 대한 이해도 및 기업의 사내 교육이 향상됐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교육 부

문은 전체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생활의 질도 향상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득 분배 구조는 개선됐으나 주택 구입은 여전히 힘들고 생활 수준도 거의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민 보건에 대한 정부의 인색한 지출도 생활 수준 향상의 저해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시사점과 정책 과제

「95년 IMD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수준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정부의 국가 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하향 추세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91년 개발도상국 중 한국의 경쟁력 순위는 3위였는데 이후 계속 하락하여 95년 현재 7위에 머물러 있다. 둘째는 21세기에 선진국 진입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에서 우리가 최하위인 점이다. 95년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후발 개도국인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는 정부, 금융,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국내 경제 역량을 활성화시켜 주는 사회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의 경쟁력이 크게 취약한 점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러한 부분의 경쟁

2) 「95년 IMD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 부문은 작년에 비해 경쟁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정부의 효율성과 규제 완화 측면에서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제화 역시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이러한 부분을 총칭하여 정부라 표현하였음.

력이 신장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두 가지 점이다. 첫째는 앞으로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한 선진국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후발 개도국의 추격을 물리치고 앞서가는 선진국들을 뒤쫓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신장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둘째는 국가 경쟁력 향상의 방향은 바로 정부, 금융,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IMD 보고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 시스템이 경쟁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경쟁력 있는 사회의 10 가지 황금률(Golden Rules)을 제시하였다. IMD는 21세기 세계 경쟁 패러다임이 「생산 공정 경쟁」에서 「구조 경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전망한다. 구조 경쟁이란 효율적인 사회 구조

를 지닌 나라가 높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경쟁력 있는 효율적 사회란 첫째, 국내 경제의 각 부문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성장을 하고, 둘째, 국내외 경제 부문간에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셋째, 부의 창출이 부의 공정한 분배로 연결되어 사회 응집력이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넷째, 전통적 가치관을 보존하는 동시에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로 정의된다. 따라서 IMD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정부, 금융과 같은 취약 부문의 제도 개선과 국민 의식의 개혁 등을 통해 사회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 시켜서 이를 뛰어난 국내 경제 능력에 접합시켜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표 4> 경쟁력 있는 사회의 10 가지 황금률

- 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의 조성
- ② 유연하고 탄력적인 경제 구조 형성
- ③ 모든 부문의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 ④ 가계 저축과 국내 투자의 증대
- ⑤ 국제 시장에서의 공격적인 경영 및 해외 고부가가치 산업의 국내 유치
- ⑥ 질과 신속성에 기초한 정부 행정 개선과 사회 개혁
- ⑦ 임금, 조세, 생산성 수준의 상호 조화
- ⑧ 소득 격차 해소 및 중산층 확대를 통한 구성원들의 괴리감 해소
- ⑨ 교육 부문 특히 중등 교육과 평생 교육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종업원의 자질 향상
- ⑩ 세계화(Globality)와 지방화(Proximity)간의 조화를 통한 부의 창출 능력 확대, 사회 응집력 유지 및 바람직한 가치관의 보존

< 부 표 > 국가별·내용별 경쟁력 순위

국가명	94년 총순위	95년 총순위	국내경 제능력	국제화	정부	금융	사회간 접자본	기업 경영	과학 기술	인적 자원
미국	1	1	1	1	6	2	2	1	1	10
가	2	2	2	2	1	1	12	5	10	1
싱가	4	3	3	3	2	4	17	8	23	19
홍콩	3	4	4	9	27	6	28	4	2	6
일본	6	5	10	18	7	3	10	3	4	4
스위	5	6	8	5	13	8	11	14	3	9
독일	8	7	14	4	26	5	13	11	13	11
네덜	9	8	22	23	3	10	6	6	22	12
질란	7	9	16	11	20	7	9	7	11	2
덴마크	11	10	19	30	22	17	1	13	17	3
노르웨이	18	11	7	14	5	12	29	15	8	18
캐나다	16	12	24	15	19	11	3	16	18	8
오스트리아	12	13	17	13	18	13	14	12	9	13
오스트레일리아	15	14	23	31	9	16	4	19	20	16
스웨덴	10	15	31	17	33	22	5	2	6	14
핀란드	20	16	29	12	17	23	7	10	7	7
프랑스	13	17	15	6	35	24	15	21	5	15
영국	14	18	21	8	14	9	16	20	14	24
벨지	21	19	18	7	42	14	18	17	12	20
칠레	22	20	11	16	10	15	22	9	27	23
말레이시아	17	21	5	21	4	18	20	22	33	25
아일랜드	19	22	20	10	29	19	24	23	19	22
이스라엘	--	23	13	26	36	31	26	18	16	17
한 국	24	24	6(7)	34(39)	24(30)	34(39)	30(29)	25(31)	15(18)	21(20)
아이슬란드	--	25	26	38	28	35	8	24	24	5
타일랜드	23	26	9	22	11	21	40	28	31	26
이집트	--	27	30	24	15	29	21	29	30	34
스페인	25	28	32	19	40	33	25	31	25	28
아르헨티나	27	29	40	33	8	36	35	27	37	27
이태리	32	30	25	20	46	38	34	26	21	30
포르투갈	28	31	35	28	34	25	31	37	41	29
페루	--	32	39	37	12	32	32	33	36	38
인도네시아	31	33	27	32	31	26	36	38	43	44
중국	--	34	12	27	21	44	45	47	26	40
필리핀	33	35	33	29	32	27	44	34	42	43
콜롬비아	30	36	36	42	23	28	46	30	32	42
브라질	38	37	44	36	25	37	37	32	29	35
체코	36	38	37	25	37	42	41	45	34	31
인디아	34	39	28	40	30	30	43	39	35	47
터키	29	40	38	41	41	41	27	36	40	36
요르단	--	41	34	45	16	39	47	42	47	41
남아프리카	35	42	42	43	38	20	19	35	28	48
그리스	37	43	41	39	47	40	42	40	39	32
멕시코	26	44	45	35	39	46	33	41	45	39
폴란드	41	45	43	47	43	43	38	44	38	33
헝가리	39	46	46	44	45	45	39	46	46	37
베네주엘라	40	47	46	46	44	47	23	43	44	45
러시아	--	48	48	48	48	48	48	48	48	46

주: () 안의 수치는 94년도 한국의 부문별 순위임.